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음주 영향요인

홍연란¹ · 도은영²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¹,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²

Factors Affecting Alcohol Drinking of Sixth-grade Children in South Korea

Hong, Yeon Ran¹ · Do, Eun Young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Muan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6th graders' alcohol drinking.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524 6th-graders in G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9.1.3 programme. **Results:** Of the children, 63.7% had no education about drinking, implying that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is not done properly in elementary schools. In addition, 70.6% of the children experienced drinking. Among those who had drinking experience, 24.9% experienced the first drinking before entrance into elementary school and this was the highest percentag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edictors are religion, family type, mother's drinking frequency, and alcohol attitud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mplementing home environment and parenting education would be effective for reducing children's drinking. Also, it is recommended that drinking prevention programs for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ffecting children's drinking including the factors identified in the present study, and the effectiveness of those programs should be assessed.

Key Words: Children, Drinking, Attitud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물이 알코올이며, 다른 약물사용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연령층의 음주경험이 다른 약물사용의 빈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Cho, Kim, Kim, & Jekarl, 2001).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만 19세가 되어야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술에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여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 결과 미성년자들의 음주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음주는 예로부터 종교나 외교 등의 상징이나 관혼상제 등의 행사의례로서 영위되어 왔고 이러한 사교주의 전통은 음주를 통하여 대인관계를 형성하려는 행동양식도 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고독, 요구불만, 억압으로부터 도피로서의 음주는 폭력 행동이나 알콜의존증, 간질환의 피해를 낳고 있다(Kim, 1997). 술은 식품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중추신경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 약물이며 중독성이 강한 독성물질로서 임신부와 환자뿐 아니라 청소년과 아동들에게도 금지시켜야

주요어: 아동, 음주, 태도

Corresponding author: Hong, Yeon Ran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419 Sungnam-ri, Muan-eup, Muan 534-701, Korea.
Tel: +82-61-450-1803, Fax: +82-61-450-1810, E-mail: yrhong@chodang.ac.kr

투고일: 2011년 10월 30일 / **수정일:** 2012년 3월 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2일

할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Moon, Yang, Sohng, & Park, 2001). 특히 음주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독성화가 쉽게 일어나고 신체 내의 세포를 비롯한 모든 조직들이 아직 성숙되지 아니 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며, 폐해도 성인보다 더 크다. 가장 위험한 것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자신의 적정 주량을 알지 못하고 급하게 많은 양을 마실 경우 만취상태가 되어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2006).

2009년 영국 전역의 11~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Glasfer, 2010)에서는 약 50만 명의 아동들이 음주를 시작하였고 성인기까지 음주가 지속될 경우 아동들의 미래 건강은 훼손될 것이며 11세부터 음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Moon, Sohng, Park과 Kim (200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음주경험이 55.8%, Kim과 Jung (2005)의 연구에서는 72.2%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시기에 음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이혼, 가족갈등, 빈곤, 담배를 포함하는 약물남용(Cara, Danielle, Elizabeth, & Laurie, 2006), 부모의 알콜섭취, 부모의 알콜에 대한 태도, 자녀의 알콜섭취에 대한 감독과 훈육, 음주기대, 음주태도(Carol, Simon, Chris, & Launa, 2008; Elya, Carolyn, John, Rosa, & George, 2009; Hayes, Smart, Toumbourou, & Sanson, 2004; Lee & Jung, 2007)를 들 수 있다.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하나로서, 인간이 최초로 접하는 교육의 장이다. 가정생활을 통하여 아동은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적 태도, 정서적 통제 및 기타 행동습관을 형성하고 인성발달을 이루게 된다.

출생이후부터 아동은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최초의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성격, 사회적응방법, 윤리의식 등 정의적인 특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과 태도는 심리적인 장의 핵심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발달과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Han & Kim, 2006).

음주기대는 알콜의 효과에 대한 기대로 음주의 시작을 예측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음주 및 문제성음주와 관련이 되며 아동기부터 음주기대가 발달한다. 즉 부모나 친구,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음주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가 발달하고 음주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ristiansen, Smith,

Roehing, & Goldman, 1989). Blume, Lostutter, Schmalting과 Marlatt (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부모의 음주행위 등은 자녀의 음주기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개인의 음주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음주태도는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나타내는 말로서 Suh와 Yang (2010)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 음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음주 충동 및 문제 음주에 대한 강력한 예측 변수이고 음주 관련 지식은 문제음주는 물론 금주의도나 음주 충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13~16세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Alan, Jennifer, Jennifer, & Clyde, 2004)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연령 및 발달 정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주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시작점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 관련 연구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며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음주정도와 자녀의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기대, 및 음주태도가 아동의 음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 관련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음주기대정도와 음주태도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음주발생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음주

술을 마심을 뜻하는 단어(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NIKL], 2011)로 본 연구에서는 65 mL (작은 요구르트 병 크기) 이상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2) 음주기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보는 자신의 직접 경험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습득되며, 경험으로부터의 정보는 기억 속에 저장되었다가 이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대감을

형성하게 되며(Bandura, 1977), 음주기대는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Korea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 [KDCAR] (2001)의 음주기대 6개 문항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음주태도

개인이 음주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신념(Keefe, 1994)으로 본 연구에서는 KDCAR (2001)의 음주태도 3개 문항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다.

2) 음주태도 측정도구

음주에 대한 태도는 KDCAR (2001)에서 초등학교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3문항의 음주태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별로 “예”인 경우 1점 “아니오”인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G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주경험실태를 파악하고 음주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개교의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고려한 독립변수는 14개이며 유의수준 5%, 검정력 95%, odd ratio 기준값을 1.3으로 하여 최소 표본의 크기가 183명으로 산출되었다(G*power program). 학교장과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진행에 동의한 뒤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가 익명의 데이터로 진행되는 사실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지를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을 수락한 58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결측 문항을 검토한 뒤 6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음주기대 측정도구

조사대상자의 음주에 대한 기대는 KDCAR (2001)에서 초등학교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6개 문항의 음주기대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별로 “예”인 경우 1점 “아니오”인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 관련특성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의 기술적 통계로 분석하였고 음주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음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아동은 여학생이 50.2%이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72.9%를 차지하였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50.4%로 가장 많았다. 학교성적은 중위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67.6%이고 경제수준은 중간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80.2%로 가장 많았다. 아동들의 한 달 용돈은 1만원-2만원 미만인 경우가 38.4%이고 1만원 미만이 33.9%로 대다수의 아동들이 2만원 미만의 용돈을 받고 있었다. 양친모두 생존하고 거주하는 경우가 92.2%였고 음주예방교육의 경험은 없는 경우가 63.7%로 가장 많았다. 부친의 음주빈도는 월 2~4회가 30.3%였고 모친의 음주빈도는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아동이 인지하는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반대하는 경우가 78.4%로 가장 많았다.

2. 아동의 음주 관련 특성

대상자 중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는 70.6%였고 없는 경우

는 29.4%를 차지하였다. 담배 혹은 기타 약물복용 경험은 없는 경우가 94.1%로 가장 많았다. 음주경험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첫 음주시기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 전인 경우가 24.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초등학교 5학년인 경우가 21.9%를 차지하였다. 음주동기는 기타인 경우가 46.2%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술을 얻고 음주하는 장소는 집인 경우가 각각 40.8%, 57.0%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음주는 부모님과 함께 한 경우가 51.6%로 나타났고 음주빈도는 1년 이내 경험이 없는 경우가 68.6%, 1년에 1~2회인 경우가

22.7%로 나타났다. 1회 음주량은 1~2잔이 91.1%로 나타났고 취한경험은 1년 이내 없는 경우가 93.8%로 가장 많았다 (Table 2).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5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61 (49.8)
	Female	263 (50.2)
Religion	Yes	142 (27.1)
	No	382 (72.9)
Life satisfaction	Good	264 (50.4)
	Moderate	242 (46.2)
	Poor	18 (3.4)
School record	Top	121 (23.1)
	Middle	354 (67.6)
	Bottom	49 (9.3)
Economic status	High	89 (16.9)
	Middle	420 (80.2)
	Low	15 (2.9)
Monthly allowance (10,000 won)	< 1	178 (33.9)
	1~< 2	201 (38.4)
	≥ 2	145 (27.7)
Family type	Both parents	483 (92.2)
	Single parent or others	41 (7.8)
Experience of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Yes	190 (36.3)
	No	334 (63.7)
Father's drinking frequency	Never	110 (21.0)
	≤ 1 time/month	91 (17.4)
	2~4 times/month	159 (30.3)
	2~3 times/week	117 (22.3)
	≥ 4 times/week	47 (9.0)
Mother's drinking frequency	Never	224 (42.8)
	≤ 1 time/month	181 (34.5)
	2~4 times/month	92 (17.5)
	2~3 times/week	21 (4.0)
	≥ 4 times/week	6 (1.2)
Parent's attitude to children's drinking	Against	411 (78.4)
	Indifferent	74 (14.1)
	Approving	39 (7.5)

Table 2. Drinking-related Characteristics (N=5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Drinking experience	Yes	370 (70.6)
	No	154 (29.4)
Smoking or drug abuse	No	493 (94.1)
	Yes	31 (5.9)
Those who have drinking onset experience	6th	30 (8.1)
	5th	81 (21.9)
	4th	72 (19.5)
	3rd	49 (13.2)
	2nd	30 (8.1)
	1st	16 (4.3)
	< Elem. school	92 (24.9)
Drinking motives	Parent's offer	77 (20.8)
	Peer pressure	8 (2.2)
	Curiosity	114 (30.8)
	Others	171 (46.2)
Route of alcohol access	Home	151 (40.8)
	Friend	17 (4.6)
	Store	72 (19.5)
	Pub	16 (4.3)
	Others	114 (30.8)
Place of drinking	Home	211 (57.0)
	Friend's house	13 (3.5)
	Playground	1 (0.3)
	Others	145 (39.2)
Drinking company	Self	96 (25.9)
	Friend	15 (4.1)
	Senior	1 (0.3)
	Parent	191 (51.6)
	Others	67 (18.1)
Drinking frequency (times)	None within 1 year	254 (68.6)
	1~2/year	84 (22.7)
	3~5/year	14 (3.8)
	≤ 1/month	11 (2.9)
	2~/month	4 (1.1)
Drinking amount	2~3/week	3 (0.9)
	1~2 glasses	337 (91.1)
	3~4 glasses	24 (6.5)
	5~6 glasses	6 (1.6)
	7~9 glasses	1 (0.3)
Drunken experience	> 10 glasses	2 (0.5)
	None within 1 year	347 (93.8)
	1~2/year	18 (4.9)
	3~5/year	3 (0.8)
	≤ 1/month	2 (0.5)

Elem. =elementary school.

3. 아동의 음주기대와 음주태도

전체 아동의 음주기대 평균점수는 1.61 ± 1.43 이었고 음주태도의 평균점수는 0.50 ± 0.66 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주경험이 있는 아동의 음주기대 평균점수는 1.70 ± 1.43 , 음주태도의 평균점수는 0.63 ± 0.69 였고 음주경험이 없는 아동의 음주기대 평균점수는 1.40 ± 1.25 , 음주태도의 평균점수는 0.18 ± 0.49 로서 음주기대와 음주태도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3).

4. 아동의 음주발생 영향요인

초등학교 아동의 음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동의 음주발생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을 포함하는 일반적 특성(성별, 종교, 생활만족도, 학교성적, 경제수준, 한 달 용돈, 가족, 음주예방교육 경험, 부친의 음주빈도, 모친의 음주빈도, 아동이 인지하는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 음주기대, 음주태도, 음주 관련 특성(담배 혹은 약물복용)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종속변수는 아동의 음주발생으로 하였다.

성별, 생활만족도, 학교성적, 경제수준, 한 달 용돈, 음주예방교육 경험, 아동이 인지하는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 음주기대, 담배 혹은 약물복용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종교가 없는 아동은 종교가 있는 아동보다 음주발생확률이 1.67배($p=.041$) 높았고, 한 부모 가정 혹은 기타 유형의 가정은 양친이 존재하는 가정보다 음주발생 확률이 3.42배($p=.014$) 높았으며, 부친의 음주빈도는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일주일에 4회 이상인 경우 아동의 음주발생 확률이 2.69배($p=.045$) 증가하였다. 모친의 음주빈도는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한 달에 1회 이하인 경우 아동의 음주발생 확률이 1.66배($p=.043$) 높았고 한 달에 2~4회인 경우는 6.33배($p<.001$) 높았다. 음주태도가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아동의 음주발생확률은 4.60배($p<.001$)

증가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24명을 대상으로 음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6학년 아동들의 음주예방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음주예방교육 경험율이 전체 학생의 36.3%로 Kim과 Jung (2005)의 연구에서는 음주예방교육율이 9.7~12.5%였던 것에 비하여 다소 높으나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교육경험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었다. 음주문제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견되는 문제이지만 아동기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청소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아직 성장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 성장저해를 가져오고 또한 잘못된 음주습관이 길러질 경우 폭행과 가출 등 비행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Gmel & Rehm, 2003; Widom, 2001).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조기음주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들(Kim & Jung, 2005; Moon et al., 2003)을 통해서 볼 때 향후 보다 적극적인 음주예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친의 존재 여부가 아동의 음주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편부모를 가진 아동과 낮은 경제적 수준에 속한 아동들이 음주와 같은 행동적 위험요소와 관련될 수 있다는 Alamian과 Paradis (200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양친 중 한 명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혼, 사별, 별거 등의 가정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신체, 정신, 사회적인 성장 촉진을 유도하는 양육행동의 지지기반이 취약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환경이 아동의 음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동의 70.6%가 음주경험이 있으며 첫 음주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의 순으로 나타

Table 3. Alcohol Expectancy and Attitude

(N=524)

Variables	M±SD	Range	Drinking experience		t	p
			Yes (n=370)	No (n=154)		
			M±SD	M±SD		
Alcohol expectancy	1.61±1.43	0~6	1.70±1.49	1.40±1.25	2.29	.034
Alcohol attitude	0.50±0.66	0~3	0.63±0.69	0.18±0.49	8.90	<.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Children's Alcohol Use in Logistic Regression

(N=524)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Gender	Male	1		
	Female	0.70	0.44 ~ 1.09	.115
Religion	Yes	1		
	No	1.67	1.02 ~ 2.71	.041
Life satisfaction	Good	1		
	Moderate	1.02	0.65 ~ 1.61	.939
	Poor	1.38	0.34 ~ 1.53	.653
School record	Top	1		
	Middle	0.75	0.43 ~ 1.33	.336
	Bottom	1.44	0.58 ~ 3.57	.427
Economic status	High	1		
	Middle	0.77	0.42 ~ 1.42	.408
	Low	0.92	0.21 ~ 0.21	.917
Monthly allowance (10,000 won)	< 1	1		
	1 ~ < 2	0.97	0.58 ~ 1.60	.890
	≥ 2	0.84	0.48 ~ 1.48	.549
Family type	Both parents	1		
	Single parent or others	3.42	1.27 ~ 9.18	.014
Experience of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Yes	1		
	No	1.03	0.65 ~ 1.64	.902
Father's drinking frequency	Never	1		
	≤ 1 time/month	0.97	0.49 ~ 1.93	.943
	2~4 times/month	1.04	0.55 ~ 1.94	.896
	2~3 times/week	0.65	0.33 ~ 1.27	.209
	≥ 4 times/week	2.69	1.02 ~ 7.12	.045
Mother's drinking frequency	Never	1		
	≤ 1 time/month	1.66	1.01 ~ 2.72	.043
	2~4 times/month	6.33	2.81 ~ 14.27	< .001
	2~3 times/week	0.64	0.20 ~ 2.04	.452
	4 or more times/week	0.46	0.06 ~ 3.41	.451
Parent's attitude to children's drinking	Against	1		
	Indifferent	0.71	0.36 ~ 1.39	.321
	Approving	1.44	0.61 ~ 3.42	.402
Alcohol expectancy		1.01	0.86 ~ 1.19	.828
Alcohol attitude		4.60	2.87 ~ 7.36	< .001
Smoking and drug abuse	Yes	1		
	No	0.96	0.35 ~ 2.59	.943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났는데 이는 Moon, Yang과 You (2001)이 초등학교 고학년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음주경험자가 55.4%인 것에
비하여 증가된 수치라 할 수 있으며 즐겨 마시는 학생이 1.9%
에 불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취한 경험자
가 6.2%로 나타나 아동에게 술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만연해있고 추후 아동들이 성장하였을 때 중대한 건강문
제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기음주의 경향성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문제음주의 가능성
이 높아지고, 20세 이후로 음주의 시작이 늦추어질 경우 음주
문제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PHA], 1998). 그
러므로 향후 음주예방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전의 아동을 대
상으로 실시되어서 음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가치관을 심어주
는 것이 필요하다.

술을 구입하게 된 장소가 집인 경우가 가장 많고 음주장소 또한 집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저소득이면서 교외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알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 12~14세 아동들의 알콜 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Kelli, Mildred, Amy, Jennifer와 Keith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음주대상도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복문화로 인해 집안 친척들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에게 약주 혹은 귀밝이술이라는 명목으로 음주를 권유하는 문화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친의 음주빈도는 아동의 음주빈도와 정상관 관계를 나타내지만 아동의 음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고 모친의 음주빈도는 음주기대 및 음주태도와 정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음주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는 부모의 음주가 가정환경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고, 10~14세 아동들이 알콜과 담배 등 약물남용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Bancroft와 Wilson (2007)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어머니가 잦은 음주를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게 하고 자녀의 음주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일반적인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음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음주기대가 높아지고 음주에 대한 태도도 허용적으로 변화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부모가 알콜남용을 하면서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알콜남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학교생활적응문제, 교우관계문제, 및 일탈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Cara et al., 2006)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음주기대는 음주를 경험한 아동군에서 음주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주기대가 아동기에 발달하며 청소년기 음주 및 문제성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Christiansen & Goldman, 1983)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주기대는 모친의 음주빈도 및 음주태도와 정상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부모가 음주하는 경우 자녀들이 성인의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Moon 등(2001)의 연구와, 실제로 음주를 경험하지 못한 아동들도 부모나 친척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나 TV 등을 통해 방영되는 음주장면을 관찰함으로써 음주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진다는 Bandura (1977)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음주태도 역시 음주를 경험하는 아동군에서 음주를 경험하

지 않은 아동군보다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음주 발생의 영향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음주를 경험하지 못한 초등학교생이 경험한 학생보다 대중매체속의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는 Moon 등(2001)의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알콜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음주빈도가 높다는 Carver, Kittleson과 Andrews (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와 건강에 관한 지식교육을 통하여 음주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양친이 한 분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을 위하여 종교, 학교, 아동센터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이 아동의 가정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존하는 부모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의 음주빈도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교육의 필요성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반복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음주 영향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학년별 맞춤형 음주예방교육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음주 관련 특성, 음주기대 및 음주태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아동의 음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음주예방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아동의 음주 영향을 주는 주요 영향요인은 양친의 존재여부, 모친의 음주빈도, 음주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 초기음주를 예방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음주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관련 영향요인을 고려한 연령에 맞는 맞춤형 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REFERENCES

-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998). Chronic disease and emergency department: A current review. *Alcohol and Alcoholism*, 37, 307-312.
- Alamian, A., & Paradis, G. (2009). Correlates of multiple chronic disease behavioral risk factors in canadian children and

-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0, 1279-1289.
- Alan, W. S., Jennifer, B. Z., Jennifer, B. U., & Clyde, W. D. (2004). Exposure to televised alcohol ads and subsequent adolescent alcohol use.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8, 498-509.
- Bancroft, A., & Wilson, S. (2007). The risk gradient in policy on children of drug and alcohol users: Framing young people as risky. *Health Risk & Society*, 9, 311-322.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Blume, A. W., Lostutter, T. W., Schmalting, K. B., & Marlatt, A. G. (2003). Beliefs about drinking behavior predict drinking consequences.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35, 395-399.
- Carver, V. C., Kittleson, M. J., & Andrews, V. J. (1991). Assessing alcohol consumption attitudes of adolescent drinkers: Implications for alcohol education programs. *The Journal of Health Behavior, Education & Promotion*, 15, 32-36.
- Cara, E. R., Danielle, D., Elizabeth, D. H., & Laurie, C. (2006). Children of alcoholics: Risk and resilience. *The Prevention Researcher*, 13(4), 3-6.
- Carol, D., Simon, M., Chris, R., & Launa, A. (2008). School policies and binge drinking behaviors of school-aged children in Wales-a multilevel analysis. *Advance Access Publication*, 23(2), 259-271.
- Cho, S. G., Kim, Y. S., Kim, J. W., & Jekarl, J. (2001). *National survey on alcohol use among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Goyang: Korea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 Foundation.
- Christiansen, B. A., & Goldman, M. S. (1983). Alcohol rated expectancies vs deprogram graphic background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dr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2), 249-257.
- Christiansen, B. A., Smith, G. T., Roehing, P. V., & Goldman, M. S. (1989). Using alcohol expectancies to predict drinking behavior at one yea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93-99.
- Elya, M., Carolyn, C., John, B. C., Rosa, A., & George, C. P. (2009). Assessing alcohol guidelines in teenagers results from a 10-year prospective stud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33, 154-159.
- Gaspar, A. (2010). Alcohol abuse among young people: the inconvenient truth. *British Journal of Nursing*, 19, 144-145.
- Gmel, G., & Rehm, J. (2003). Harmful alcohol use. *Alcohol Research and Health*, 27, 52-62.
- Han, S. S., & Kim, K. M. (2006). Influencing factor on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37-44.
- Hayes, L., Smart, D., Toumbouron, J. W., & Sanson, A. (200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alcohol use (Research Report no. 10)*. Melbourn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Keefe, K. (1994). Perceptions of normative social pressure and attitudes toward alcohol use: Change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Study on Alcohol*, 55, 45-46.
- Kelli, A. K., Mildred, M. M., Amy, L. T., Jennifer, M. B., & Keith, E. M. (2007). Effects of home access and availability of alcohol on young adolescents' alcohol use. *Addiction*, 102, 1597-1608.
- Kim, S. J. (Eds.). (1997). *The great encyclopedia of nursing science*. Seoul, Korea: Korea Dictionary Research.
- Kim, Y. M., & Jung, M. H. (2005).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web-based preventive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4), 17-40.
- Korea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 (2001). *National survey on alcohol use among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Research Report 2001-4)*. Goyang: Author.
- Lee, D. S., & Jung, M. S. (2007). The analysis of the effect factor on drinking behavior of teenagers. *Social Welfare Policy*, 31, 125-148.
- National Institutes of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06). Underage drinking. *Alcohol Alert*, 67, 1-7.
- Moon, J. S., Sohng, K. Y., Park, S. N., & Kim, H. S. (2003). Educational needs of drinking prevention for prim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9, 180-189.
- Moon, J. S., Yang, S., & You, Y. S. (2001). A survey on status of drink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5, 73-82.
- Moon, J. S., Yang, S., Sohng, K. Y., & Park, S. N. (2001). A survey on knowledge and attitude in drink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5(2), 285-300.
- Suh, K. H., & Yang, S. A. (2010). Relations of the knowledge of alcohol effects and attitudes toward alcohol use to factors of the drink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1, 15-26.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1, May 5).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Retrieved October 9, 2008, from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 Widom, C. S. (2001). Alcohol abuse as risk factor for and consequence of child abuse. *Alcohol Research and Health*, 25, 52-57.